로컬뉴스

군산, 공원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군산시가 공원·녹지의 행정 환경 변화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원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현황 파악과 관리 실태, 노후 정도, 교체 여부 등을 확인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시민 휴식 공간 확충 및 불편사항 해결과 함께 향후 공원관리에 필요한 추가 예산확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각 공원별 시설물의 총괄 현황 및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법령에 정한 공원 관리대장을 작성해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보관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청취해 157개소 공원의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임피면, 벼 이삭모으기 운동

군산시 임피면(면장 전종신)은 십시일반 나눔 봉사 실천을 위한 사랑의 벼 이삭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관내 32개 모든 마을에서 십시일반으로 1,500㎏의 벼이삭을 수집했다.

수집된 벼이삭은 관내 미곡처리장의 도움을 받아 도정과 포장 과정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과 마을 경로당 등에 전해졌다.

이희풍 이장협의회장은 "빗방울이 모여 내를 이루듯 마을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면민 모두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소방서,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군산소방서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관내 푸른솔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소방서는 최근 잦은 지진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지진체험을 통한 초기 대처능력과 피난방법과 이동체험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구조대를 이용한 건물에서의 화재대피체험 등 다양한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초등학교 등 많은 어린이들이에게 소방체험교실을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주민 교통안전 확보 총력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통장단 회의에 참석, 교통사망사고예방 홍보에 주력하는 등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5일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이 직접 관내 중앙·남중 ·모현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통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통장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예방 방안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하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홍보 등 지역 안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중앙지구대는 손목형 야광밴드를 제작하여 경로당 등을 방문 배부하고 전동휠체어 및 자전거에는 야광반사지를 부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차량 대상 음주감지를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농림축산검역 호남지역 본부

군산시 미장지구 신축 이전

내달 준공… 사업비 136억원 투입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

정부기관의 외부도시 이전을 막기 위한 군산시 관계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군산시 미장지구에 들어서게 될 농림축산검역 호남지역 본부(이하 호남지역본부)가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호남지역 본부는 총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 5,098㎡규모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호남지역본부는 동·축산물 및 식물검역, 동·식물의 질병 방제 및 방역, 수의과학·식물 검역기술 개발, 연구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농림축산 검역 본부의 산하 지역 본부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1개 광역시, 36개 시·군이 관할구역이며 동물 및 축산물, 식물의 검역·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호남지역본부는 1978년부터 동물검역소 군산지소 설치 후 군산시 해망동 소재 청사에 입주해있으나 2006년 시작된 동백대교(군장대교) 건설사업으로 건물철거가 예정되었고, 이후 군산 관내에 적합한 신규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조직개편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3개 기관이 통합 출범함에 따라 전주 신시가지에 1,2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를 진행했다.

이에 군산시는 문동신 시장을 비롯한 해당부서 직원들이 경기도 안양소재 검역검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수 차례 방문, 타 지역 이전에 따른 부당성을 호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들은 농림축산물의 검역·검사업무가 군산항이 소재한 군산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새만금 종합개발 전망 등의 여건을 감안해 통합청사 군산 설치 및 검역검사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호남지역 본부의 군산유치에 앞장섰다.

노력의 결과, 정부와 군산시는 총 9차례에 걸친 부지 협의 끝에 지난 2012년 교통이 편리하고 공공기관이 밀집된 미장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축 청사 건립을 확정하게 됐다.

이후 호남지역 본부는 '2013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에 이어 '2014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 취득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그간 군산시와 공동으로 청사 신축 예산확보 등 신청사 이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신청사 추진과정에는 청사 이전 및 신축에 필요한 국비확보가 난항에 부딪치는 등 적지않은 어려움도 따랐다.

하지만 군산시는 끈질긴 노력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41여억 원을 확보했다.

또 설계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발견되어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등 2015년으로 예정되었던 준공기한이 2016년으로 연장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인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군산지역의 국가 검역기관으로 거듭나 지역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발전,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탄력 기대

도시재생 추진단 개소식·주민공동협의체 발대식

익산시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성공과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원도심사업 지구 내로 도시재생계를 이전하고 28일 도시재생추진단 개소식과 도시재생 주민공동협의체 구성에 따른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중앙동주민센터 및 도시재생 추진단 사무소가 위치한 중앙로5길 10 전북은행 익산지점 2층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들과 주민공동협의체 구성원,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헌율 시장은 중앙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공동협의체 임원진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추진단 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현판식을 가졌다.

도시재생추진단 사무소는 도시개발과 소속인 도시재생계가 앞으로 상주하며 행정과 주민, 전문가 등이 서로 적극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주민의 역량강화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주민공동협의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민공동협의체는 주로 원도심지역(중앙동, 인화동, 평화동일원)의 주민들 45명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상시기구로 주민 주도에 의한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결성되었다. 발대식을 기점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개소식과 발대식을 계기로 체계적인 민간조직체가 구성되고 담당부서가 현장에 배치돼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헌율 시장은 "담당 부서 현장배치와 주민공동협의체 구성운영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과정을 통해 주민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원도심지역 활성화 추진에 대한 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8주간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고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왔다.

/익산=장양원 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코레일 스쿨' 철도직업체험 프로그램 시행

남원시 사매초등학교 전교생 31명 대상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장영철)은 사회공헌활동 특화사업으로 진행 중인 '코레일 스쿨2016' 대상학교인 남원시 사매면 소재 '사매초등학교(학교장 박영수)'를 찾아 전교생 31명을 대상으로 철도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코레일 스쿨은 전북 농어촌?도서지역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에 사매초등학교와 적성초등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제작된 철도이야기 동영상 시청,철도무전기를 이용한 무전통신 체험, 남원역 부역장과 KTX 여승무원의 업무를 경험해보는 역할 체험, 철도에너지 변천사에 대한 강의 등 어린이들의 철도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철도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장영철 전북본부장은 "찾아가는 철도직업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철도교통의 역할 및 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마음에 철도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공군 기지, 한·미 연합 'Vigilant ACE 훈련' 실시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와 美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실전적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한·미 연합 훈련인 'Vigilant ACE 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훈련기간 주·야간 지속하여 24시간 작전임무 및 비행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8전대와 美 8비는 훈련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비행소음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전투기의 야간 비행으로 군산공항 인근에 늦은 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의 이해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지역 기업·단체

겨울용품 전달 이어지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겨울용품 전달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28일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와 군산도시가스(대표 윤인식)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연탄 1만6700장을 전달해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군산상공회의소와 군산도시가스 임직원 40여명과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이 참석해 사랑과 정성의 온기가 담긴 연탄을 전달했다.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은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따스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활동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세아베스틸은 1600만원 상당의 겨울용품(겨울이불 200채, 전기요 100개)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주)세아베스틸은 지난 2012년부터 군산시와 '희망나눔 지역복지협약'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총 8억4000만원 상당을 어려운 이웃 및 복지시설에 후원하고 있다.

이번 기탁된 성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동절기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가정 등 겨울 난방 취약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태완 노조위원장은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며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군산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개정동주민센터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 20여명은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연탄 1000장을, 청소대행업체인 (주)군산서해환경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희망봉사단도 월명동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4가구에 2000장의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내년도 예산안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은 28일 오전 10시경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익산시 9625억원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 시장은 "주요 예산내용은 시민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밝혀줄 사회기반 시설확충과 골목 정비 예산을 편성해 영세 시공업체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세계유산 후속대책 등의 미래성장 동력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 확충사업▲전국체전을 대비해 쾌적하고 꽃향기 가득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감▲부채감소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목표 설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주력(2026년 상환기한을 2020년 5년 앞당김)▲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북부권 농업행정타운 건설▲평화육교 재가설 사업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아름다운봉사단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 봉사 활동

익산시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의성)위원들과 아름다운봉사단(단장 강용순)이 관내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세대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실시해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했다.

복지 통장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도움을 요청한 이 기초수급자 세대는 집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 악취가 심했으며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만큼의 쓰레기더미가 있어 쓰레기 수거와 청소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20여명의 봉사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구슬땀을 흘리며 실내 청소 외에 실외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11월 9일에는 ㈜마한환경과 연계해 실내, 실외 소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었다.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이불세탁을 통해 쾌적한 잠자리 제공했다.

28일에는 주택문화창의센터와 원광자활지역센터의 도움으로 노후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했다.

임유태 남중동장은 "앞으로도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이 되어 주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경찰서, 도내 교통경찰활동 종합평가 1위

군산경찰서가 '2016년 도내 경찰서 교통경찰활동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교통경찰활동 종합평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4대 관리지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경찰서는 최근 5년간의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교통안전을 위한 경보발령과 기후, 도로사정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를 시민들에게 문자로 보내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시책과 홍보활동을 적극 펼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군산에서는 3년 대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16명(38.1%)감소, 보행자 교통사고 4.3명(32.4%)감소, 음주운전 3명(50%) 감소하는 등 각종 교통사고 예방 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군산=문정곤기자